

원천강(袁天綱)본풀이(本解)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이 광 자**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저자의 한국용연구원 수료논문을 요약 발췌한 내용으로 이 논문의 대상은 원천강(袁天綱)의 내력담을 풀 제주도의 서사무가(敍事巫歌)인 원천강본풀이다. 이는 구복(求福)여행담의 속성과 제주도 본풀이 속성이 같이 함유된 본풀이로 주인공의 지상용출 탄생의 신화소, 홀로 버려진 주인공의 학과 야광주와 같은 동물과 자연의 보살핌에 의한 성장 모티브, 부모국 원천강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오늘이가 신녀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입문의례적인 어려운 과제들이 잘 드러나 있는 무가이다. 이 무가의 주인공은 땅에서 홀로 솟아난 여자아이로 학과 야광주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오늘이'이라는 이름을 얻고, 백씨부인을 만나 부모국이 '원천강'임을 전해 듣고 그곳을 찾아간다. 원천강을 찾아가는 길에, 오늘이는 책만 읽어야 하는 청의동자, 상가지에만 꽃을 피우는 연꽃나무, 야광주 세 개를 물고도 승천하지 못하는 천하대사, 책만 읽어야 하는 매일이 그리고 구멍 뚫린 바가지 때문에 물을 퍼내지 못하고 울고 있는 옥황의 시녀궁녀들을 만난다. 이들은 '정체'속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이의 과제이며, 이 대상들이 지닌 어려운 문제들과 그 해결의 과정이 곧 삶의 중요한 '목적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이 무가의 오늘이의 신녀로의 변환의 과정을 분석심리학적 관점

접수일 : 2014년 3월 26일 / 심사완료 : 2014년 5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6월 12일

*이는 한국용연구원 수료논문을 지면관계로 간단히 요약 발췌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전문의, 융학과 정신분석가, 국제 분석심리학회 정회원

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여러 문헌을 통한 확충작업으로 그 과정을 따라가 보았다.

중심 단어 : 서사무가 · 원천강 · 오늘이 · 원형상 · 입문의례 · 신녀.

들어가는 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의미나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 유효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이러한 분석심리학적 고찰의 대상을 선택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를 선택한 후, 분석심리학 공부를 위해 독일에 가서 어렵게 개인적인 분석을 받게 된 후, 그 당시에 꾸 꿈으로 다음과 같다:

“...어두운 밤, 땅에서 원반 모양의 땅이 약간 솟아오르더니 그것이 중앙에서 반으로 나누어지고, 중앙의 검은 구점을 중심으로 오색찬란한 빛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 오색찬란한 빛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매료되어 그곳에 다가갔을 때 그곳에는 빛을 가득 담은 듯 한 범상치 않은 커다란 분홍색 꽃이 땅위에 있었다. (깨어나서 생각하니 연꽃이 땅위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 꽃에 다가가 그 안을 보았을 때, 그 안에는 뭔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새까만 진주 같은 구슬이 중앙에 들어 앉아있었다...”

그 까만 구슬 같은 것이 웬지 이 아름다운 분홍빛의 신성한 꽃에는 어울리지 않고, 낯설어서 그 구슬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꿈이었다. 그 당시 나의 삶의 태도는 전형적인 의식의 일방성으로 삶을 살아가던 시기였다고 본다. 대학교 시절에 알게 된 기독교의 선악과 죄에 대한 이분적인 태도에 대한 갈등과 우연히 접하게 된 요가의 신비스러운 경향에 대한 내적 갈등이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시기로 짐작된다. 이 꿈은 독일이라는 고립된 타지에서 분석심리학에 대한 막연한 열망에 대한 무의식에서의 도움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특히 연꽃은 꿈의 여정에서 여러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 까만 구슬도 계속 나를 일깨우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꿈은 한국융연구원에서

융학과 정신분석가로의 수련과정에서 상징논문과 수료논문의 주제로 나를 이끌었고, 그렇게 연꽃과 관련된 문헌을 찾으며 발견하게 된 것이 제주무가인 ‘원천강본풀이’이다.

원천강본풀이의 소개

원천강본풀이는 아키바 다카시와 아카마츠 지조가 1937년에 쓴 ‘조선무속의 연구’¹⁾에 수록되어 있고 이는 제주무가로 원천강(袁天綱)의 내력담을 푼 서사무가(敍事巫歌)이지만 현재 제주도 고향에서는 구연되지 않는다. 본토 설화의 구복(求福)여행담의 속성²⁾과 제주도 본풀이 속성인 지상용출의 탄생, 천상으로의 상승, 신궁문(神宮門)을 여는 군문열림이 함유되어 있다.

1. 원천강본풀이(袁天綱本解)³⁾의 요약내용

이 무가는 주인공 ‘오늘이’가 자신의 부모국 원천강을 찾아가 부모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백씨부인, 청의동자, 연꽃나무, 천하대사, 매일이, 시녀궁녀는 모두 오늘이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대상들이다. 그러나 청의동자나 연꽃나무, 천하대사, 매일이, 시녀궁녀들 모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원천강에 들어가게 된 오늘이는 자신의 부모를 만나고 원천강을 구경한 후, 자신이 가지고 온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을 듣고, 자신도 연꽃과 야광주를 가지고 신녀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1. 적막한 들에 외로이 나타난 옥같은 계집애

옥같은 계집애가 적막한 들에 외로이 나타나니/그를 발견한 차세상사람들이/

1) 赤松 智城, 秋葉 隆(1937) : 《朝鮮巫俗の研究 上》, 大阪 屋號書店, pp467-479.
 2) 박상학(2009) : “한국민담 ‘구복여행’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Vol. 40, 박신 : 한국민담 ‘복타러 간 사람’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참조 (한국융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3) 원천강본풀이의 전문은 지면관계로 이 논문의 부록에 소개하였으니 참조바람.

어느 어떠한 아이냐고 묻더라/나는 강님들에서 솟아났습니다/성이 무엇이며 이름이 무엇이나/나는 성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그러하니 어찌하여 우금(지금)까지 살아왔느냐/내가 강님들에 솟아날 때부터 어떤 학조(鶴)가 날아와서 한 날개를 깔아주고 한 날개를 덮어주며 야광주를 물려주며, 그리저리 살려주니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왔습니다/연령은 얼마이나. 나이도 모릅니다/이러하니 사람 사람들이/너는 낳은 날을 모르니 오늘을 낳은 날로 하여 이름을 오늘이라고 하라/

1) ‘땅에서 솟아난’ 아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의미

처음 등장한 아이는 ‘옥 같은 계집애’이다. 적막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 존재의 실재 모습이다. 옥같이 맑고 깨끗한 아이가 자신은 강님들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지상용출’의 탄생에 대해 제주 신화에 대한 연구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

“...북방의 신화 속의 주인공은 천상에서 하강하고, 그래서 부계는 천(天) 혹은 해(日)이다. 남방의 신화 속 주인공은 땅에서 솟아나거나 바다를 통해 도래한다고 한다. ‘땅에서 솟아난’ 주인공은 탐라를 비롯해 유구와 대만, 그리고 태평양 해양 도서에 두루 분포한다고 한다. ‘땅에서 솟아남’의 모티브는 탐라만의 독자성을 말해 주며, 탐라국 건국신화인 삼성신화에는 고(高), 양(梁), 부(夫) 3신인이 종지용출(從地湧出)(땅에서 솟아남)하였다는 신화소가 있다. 이는 화산의 폭발과 같은 경험을 가진 섬 지역에 많은 분포를 보인다고 한다.”⁴⁾

인간이 식물처럼 대지로부터 솟아 나오는 것이 인류의 원천적인 신화로 엘리 아테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이가 대지로부터 왔다’고 생각되었고, 사생아는 ‘대지의 자식(terrae filius)’이라고 불렸다⁵⁾고 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은 대지를 ‘인간이 발생하는 모태’라고 생각하였고, 페루인은 자신들이 산과 돌의 자손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이 동굴, 갈라진 틈, 샘 등에서 기원한다고 보는 민족도 있었고, 유럽에서는 현대까지도 아이들이 연못이나 샘, 강, 나무 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속신이 남아있다.”⁶⁾ 이와 같은 ‘땅에서 솟아나는 아이’의 모티브는 세계

4) 허남춘(2011) :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도서출판 보고사, 서울, p48.

5) Eliade M(이은봉 옮김)(2009) : 《종교 형태론》,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p335.

6) Eliade M(이은봉 옮김)(2009) : 앞의 책 pp328-329.

각처의 인류학적 자료 및 신화, 민담 등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2) ‘버려진 아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의미

홀로 ‘버려진 아이’의 모티브는 신화나 민담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온갖 고난을 통한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버린 ‘병들어 죽은 부모’를 다시 환생시킬 영약을 구해 부모를 환생시키고, 자신은 만신(萬神)의 인위왕(人爲王)이 되는 길을 택한 우리나라의 무조전설(巫祖傳說) 바리공주(捨姬)⁷⁾에도 ‘버려짐’의 모티브가 있다. 세계 각국의 잘 알려진 민담 속에도 ‘버려짐’의 모티브는 많이 등장한다. 융은 ‘어린이 원형’과 ‘비범한 출생’과 ‘버려짐’ 등의 심리학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린이 원형은 단순히 개인에게 속하는 상이 아니라 항상 전체 인류에 관계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제는 집단정신의 전前의식적 유아기-소아기의 측면을 나타낸다. … 그리고 어린이 원형은 미래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 주제의 본질적 측면은 그 미래적 특성이라고 하고 있다. 즉 어린이는 잠재력을 지닌 미래이다. 그리고 어린이 상은 대극을 융합하는 상징, 하나의 증재자, 구제자 즉 전체성의 실현자다. 그래서 어린이 주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환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형태는 환(環)이나 원, 구(球), 또는 전체성의 또 다른 형태인 사위일체로 표현된다. 의식을 초월한 전체성을 융은 자기(Selbst)라고 명명하였는데, 개성화과정의 목표는 자기의 합성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만 결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합성이란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어린이 원형의 역할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을 서로 결합하여 전체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어린이’는 때로는 신의 측면을, 때로는 어린 영웅의 측면을 더 많이 갖는다. 두 가지 유형은 모두 비범하게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에 버림 받고 박해자들에 의해 위협에 처한다. ‘신’은 순전히 ‘초자연’이고, ‘영웅’은 인간적이기는 하나 초자연의 경계까지 올라간 ‘인간 존재’다. 신은 아직 인간존재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징적 동물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으면서 집단적 무의식을 인격화하는 반면, 영웅은 그의 초자연 속에 인

7) 赤松 智城, 秋葉 隆(최석영 해제)(2008) : 《조선무속의 연구 (상)》, 민속 인류학 자료대
계 16, 민속원, 서울, pp3-60.

간 존재를 포함한다. 따라서 ‘신성한’ 즉 아직은 인간화되지 않은)무의식과 인간 의식의 합성을 나타낸다. … ‘비범한 출생’이란 일종의 생성의 체험을 묘사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정신적인 생성이므로 모든 것은 도무지 보통의 경험이 라고는 할 수 없는 식으로 일어난다. 버려짐, 보잘 것 없음, 위험 등이 전체성에 이르는 불확실한 정신적 실존 가능성, 즉 최고의 선에 이르기까지 겪게 될 험한 고난을 묘사하려고 하고, 삶의 충동이 직면하게 되는 무력함과 곤궁함을 나타내고, 어둠이 괴물, 용이나 뱀 등에 의한 위협으로 무의식이 의식에서 얻은 것을 다시 삼켜버릴 위험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때 영웅의 역할은 어둠의 괴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라고 기다렸던 의식의 무의식에 대한 승리이다. 낮과 빛이 의식과 동의어이며 밤과 어둠은 무의식과 동의어다. ‘어린이’는 이미 그 어둠을 이겨낸다는 목표를 암시하는 행동으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⁸⁾

이는 이 무가에서의 주인공의 탄생과 성장과정과 그 목적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학(鶴)과 야광주(夜光珠)로 살려진 아이

이 아이는 학의 보살핌과 야광주로 살려졌다고 한다. ‘학’은 두루미로도 불리고 십장생 중의 하나이며, 승화, 초월, 피안적인 동물, 신의 사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개자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야광주(夜光珠)는 단어적 의미로는 ‘밤에 빛나는 구슬’이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분석심리학에서 어둠이 무의식성을 상징한다면, ‘빛’은 ‘의식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광주는 무의식의 세계에 ‘빛’ 즉 ‘의식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의 형태와 빛을 지닌 야광주는 분석심리학적 의미로 ‘자기(Selbst)’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아이가 본능적인 자연에 의존해 살려진다는 것은 ‘전체 정신’을 상징하는 ‘자기’의 기능에 의해 살아져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이만의 구(球)에 대해 언급으로 원, 구, 그리고 둥근 것으로서 표현되는 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자기(Self)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관점들⁹⁾과 일치해서

8)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3) :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p254-256.

9) Neumann E(1995) :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p8.

구의 형태로 빛을 지닌 야광주는 분석심리학적으로 '자기(Selbst)'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의식의 어둠의 상태가 야광주의 빛으로 점차 의식화 되는 과정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4)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 '오늘이'

이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름은 의식으로의 자아 탄생의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다. 이 무가의 '오늘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이 연상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 같은 '시간'과의 연관성이다.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노이만은 '시초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극이 도래하기 전인 '시초의 시기'는 '의식이 아직 없는 위대한 시대의 자체묘사'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은 텅 빈 원인 '무극(無極)'이다. ... 인간의 도래와 탄생과 생산 전의 시간이 '영원'이듯이, 존재의 전前역사적인 상태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永遠)'이다. 인간과 자아의 탄생 전에는 시간이 없고, 단지 영원(永遠)이 있듯이, 공간은 없고, 단지 무한(無限)이 있을 뿐이다."¹⁰⁾

시간의 신 '아이온'에 대해 융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는 미트라스 제식에서 기인한 시간의 신, 아이온(Aion), 즉 크로노스(Kronos) 혹은 '사자머리를 한 신'이란 의미의 데우스 레온토케팔루스(deus leontocephalus)를 만난다. 그의 형상은 뺨뺨하게 굳은 자세로 서 있고, 뱀 한 마리가 그의 몸 전체를 휘감고 올라가 사자머리 뒤쪽에서 앞으로 뱀의 머리가 얹혀져 있는 상이다. 이 조각상의 양손에는 열쇠가 있고 가슴에는 뇌신(雷神)의 화살인 번개가 있다. 등에는 바람의 날개 네 개가 있다. 몸에는 수대(獸帶)기호가 있으며, 수탉과 연장들도 있다. 이는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아이온이 리비도의 상들로 합성되어 있는 '시간의 상징'이다."¹¹⁾

주인공의 이름 '오늘이'는 사계절을 조절하는 '원천강'과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 논문 후반의 원천강에 대한 고찰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10) Neumann E(1995) : 앞의 책, p12.

11)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6) : 융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p191-194.

2.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이 오늘이의 부모국이 원천강(袁天綱)을 알려줌

여러 백성들에게 이름을 지어 얻어 이리저리 다니다가/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에게 가니/너는 오늘이가 아니냐, 예 오늘이올시다/너의 부모국(父母國)을 아느냐/모릅니다, 너의 부모국은 원천강이라/원천강은 어찌하여 갑니까/ 네가 원천강을 가려거든/백사가(白沙街)의 별층당(別層堂)위에 고좌(高坐)하여/글읽는 동영(童嬰)이 있으니, 그 동영에게 찾아가서 문의하면, 소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는 이름은 얻은 주인공은 여기 저기 다니다 박이왕의 어머니인 백씨부인을 만나 부모국이 ‘원천강’임을 알게 된다. 이 노현부인은 오늘이에게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응은 ‘민담에 나타난 정신현상’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노인이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철저한 숙고나 온 좋게 떠오른 생각들, 즉 ‘정신적’ 기능이 나 정신 내적 자동장치가 주인공을 구할 수 있을 경우 언제나 등장한다. 그러나 주인공이 내적,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스스로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을 보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식이 의인화된 사고의 형태로, 바로 조언과 도움을 주는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¹²⁾

1) 서천강(西天江)의 백사가(白沙街)에서 글읽는 동영(童嬰)과의 만남

서천강(西天江)의 백사가 별층당을 찾아가서 문의해서 종일토록 서 있다가/날이 일모(日暮)하니 울성(柵城)안에 들어가서/과객이 왔습시다하니/청의동자(青衣童子) 한 명이 나오면서, 누구입니까 묻거늘/나는 오늘이라는 사람입니다/저도령님은 누구십니까/나는 장상(張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옥황(玉皇)의 분부가 여기 앉아 언제든 글만 읽어야만 한답니다/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부모국이 원천강이라하니/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이가 대답하니/ 그 청의동자가 친절한 말로/오늘은 날이 다 저물었으니 올라와서 이곳에 유숙하였다가 밤새거든 떠나시오, 올라가서 치사하고 백씨부인 만난 사실을 말하며 길인도하여 주기를 간청하니/가다보면 연화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연꽃나무가 있습니다/ 그 연꽃나무에게 물으면 알 길이 있을 것입니다/한데 원천강에 가거든

12)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3) :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p287-288.

왜 내가 밤낮 글만 읽어야하고/이 성밖으로 외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다가 전하여 주시오/

서천강은 오늘이가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은 건국신화 등에서 건국의 신성한 모태의 상징이고, 풍요와 포용력의 상징이며, 인간이나 모든 동식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다. 물은 종교적 의례에서는 성수(聖水)와 정화수(淨化水)의 의미로 존재하고, 생명의 원천, 죽음과 재생의 터, 살아있는 심혼의 상징, 심적 에너지, 정신적 원천, 생성과 소멸, 재탄생이 문제되는 정신현상에는 언제나 출현하는 원형적, 보편적, 근원적인 상징이다.¹³⁾ 이 무가에서 오늘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주변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의 물이 있음을 보게 된다.

성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갇혀있는 청의동자의 상황은 '미녀와 야수', '개구리 왕자'와 같은 민담 등에도 나타나는 모티브이다. 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다. 이를 여성의 아니무스의 의식화과정으로 보는데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민담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이가 처음 대면한 인물 청의동자는 심리학적으로 오늘이의 아니무스로 오늘이가 장차 의식화하여야 할 대상이며, 개성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무의식으로의 안내자로 볼 수 있다. 폰 프란츠는 여성으로서 아니무스의 의식화작업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실생활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 문제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녀의 아니무스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아니무스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이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현상들에 직접 대면한다면, 그녀의 아니무스는 매우 귀중한 내적 동반자로 바뀔 수 있으며, 이것은 그녀에게 주도성, 용기, 객관성, 그리고 영적인 지혜 등의 남성적인 성질을 부여한다."¹⁴⁾

이제 이러한 사고와 정신에 필요한 중요한 책이 이 무가에서 의미하는 바를

13) 이부영(2013) : 《노자와 용》,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p152.

14) Jung CG 엮음(이부영 외 옮김)(2013)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p217.

지면 관계상 간단히 살펴보면, 제주무가에서 원천강이 원천강화주역(袁天綱畫周易)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아, 청의동자가 읽고 있는 것은 주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2) 연화못(蓮花池)가의 연꽃나무

날이 새어 떠나 가다보니/과연 연화못가에 연꽃나무가 있더라/연꽃나무를 보고, 연꽃나무야 말 좀 물어보자/어디로 가면 원천강을 가느냐/웬일로 원천강을 가시고/나는 오늘이라는 사람인데/부모국 원천강을 찾아가노라/반가운 일이로구나/그러면 나의 팔자나 알아다 주시오/무슨 팔자이뇨/나는 겨울에는 움이 뿌리에 들고/정월이 나면 몸중에 들었다/이월이 되면 가지에 가고, 삼월이 나면 꽃이 되는데/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아니 피니/이 팔자를 물어줍소/그리고 원천강은 가다보면 청수아당가(靑水海邊)에 천하대사(天下大蛇)가 누어서 구르고 있을 터이니/가 그 대사에게 물으면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요/

우선 연화못은 서천강의 흐름과 달리 고요하고 정적이다. 나무 또한 정적이다. 나무는 부동의 자세로 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신을 성장시킨다. 끊임없이 대지로부터 물과 양분을 끌어올리고, 빛과 공기로 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동화시켜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와 씨를 맺는다. 순환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겪어내며 자연과 더불어 순리대로 살아간다. 책이 사고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남성적인 로고스와 관련이 있다면, 꽃과 나무는 대지와 자연,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나무는 '샤머니즘'에서의 '우주수'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샤먼은 이 우주수(宇宙樹)로 자기의 무고(巫鼓)를 만들고, 의례때 자작나무를 오름으로써 우주수의 맨꼭대기로 오르는 행위를 대신한다... 세계수는 끊임없이 재생을 반복하는 우주, 우주적 생명의 무한한 원천, 거룩한 것을 갈무리하는 신성한 저장고(천상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중심'에 있으므로)를 상징하고, 천상의 천국 혹은 현세의 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세계수는 생명의 나무인 동시에 영원불멸의 나무이다.”¹⁵⁾

분석심리학적으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고 위로 성장해 가는 식물로 개

15) Eliade M(이윤기 옮김)(1992) : 《샤머니즘》, 까치글방, 서울, pp 250-252.

성화과정에서의 중요한 상징적 모티브임을 강조하며 지면관계상 ‘연꽃’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기로 한다.

인도의 신화에는 브라마의 탄생에 연꽃이 등장한다. 우주적인 존재가 우주의 대양 한 가운데 태양과 같이 빛나며 흠 하나 없는 순금의 수많은 꽃잎을 지닌 단 하나의 연꽃을 내어 놓고, 이 연꽃과 함께 그는 타오르는 창조적 에너지를 확산하고 빛을 발산하며 황금의 연꽃 가운데 앉아 있는 ‘브라마 즉 우주의 창조신’을 탄생시킨다. 브라마의 연꽃은 ‘대지의 최상의 형상 혹은 측면’으로 신성한 전승에서 현자들에 의해 노래로 불리지고 있고, 그것은 흠의 요소에 대한 상징으로 표식 되고, 대지 혹은 습기의 여신임을 이야기한다.¹⁶⁾ 그리고 리그베다에 부가된 외전 송가에서 연화의 여신은 스리(Shri)와 락쉬미(Lakshmi)라는 두 가지 고전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연화의 상징과 연관되어 있다.¹⁷⁾ ‘손에 쥔 연꽃’으로 알려진 여신의 특유한 자태는 대승불교의 인물 표현에 있어서 보살들 혹은 부처에 대한 불멸의 조력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 우주적인 구세주 파드마파니(Padmapāni ‘손에 쥔 연꽃’)에게 인정된다. … 그리고 또 다른 여성적 의인화로 대승불교에서의 반야바라밀다(prajñā-Pāramitā 般若波羅蜜多)의 예를 들고 있다. 열반으로 인도하는 지혜(prajñā)는 최고의 덕(Pāramitā)으로 부처들 즉 온전히 깨달은 자들의 본질이며 수업 중에 있는 부처 즉 보살은 그것을 완벽하게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연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타고난 우직한 무지의 암흑을 거두어 주는 깨달음의 상징을 떠받쳐 주고 있다고 한다. … 락쉬미는 그녀의 자비롭고, 생명을 부여하며 생명을 키워주는 측면에서 생명의 우주적인 어머니이고, 반야바라밀다는 지독히 무자비한 환생의 순환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깨달음의 지혜의 빛을 방출한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Sophia) 즉 깨닫게 하는 지식의 어머니와 근원에 대한 불교적 표현이다. 이곳에서의 연꽃은 결국 우리들 모두는 사실상 부처들이며 초월적인 불후의 영역의 방사들이며 반영들이라는 사상을 표현한다.¹⁸⁾

응은 연꽃 속에는 붓다, 시바 등이, 마리아 성에 있는 장미 속에는 그리스도

16) Zimmer H 지음, Campbell J 엮음(이숙중 옮김)(2002) : 《인도의 신화와 예술》, 도서출판 대원사, 서울, pp72-73.

17) Zimmer H 지음, Campbell J 엮음(이숙중 옮김)(2002) : 앞의 책, pp118-119.

18) Zimmer H 지음, Campbell J 엮음(이숙중 옮김)(2002) : 앞의 책, pp125-131.

가 있고, 황금꽃 속에는 금강체의 태생지가 있음¹⁹⁾을 이야기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만다라화(曼荼羅華)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오묘한 법칙이 연꽃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무와 연꽃은 전체성으로서의 자기실현의 원형적 상징이다. 특히 연꽃은 지혜와 깨달음, 창조와 재탄생의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청의동자나 연꽃나무는 현재 ‘정체’의 상태에 있다. 이 ‘정체’는 이 무가에 등장하는 대상들이 처해 있는 모든 곤란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용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어 소개한다.

“...용은 자신의 환자의 3분의 2는 인생의 후반기에 놓여 있는 환자로, 대부분 사회적으로 잘 적응되고, 종종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 그들에게 정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합리적인 치료 방법에 저항을 일으킨다. 그들의 대다수가 의식의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막다른 골목에 막혀 멈추어 있는’ 상태이다. 정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징적인 반응과 대상의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용은 무의식의 반응, 예를 들어 꿈에서 이런 반응과 대상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서 용은 꿈에 주된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그것은 과시할 만한 과학적인 결과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환자에게 자신의 무의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치료적으로 중요한 암시”²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막혀 멈추어 있는’ 상태의 이 무가의 등장인물들에게 ‘원천강’은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할 지를 기다려 보자.

이제 오늘이는 천하대사(天下大蛇)에게로 가야한다.

3) 청수아당가(靑水海邊)의 천하대사(天下大蛇)

결별하여 청수아당가에 이르러 이리저리 구르고 있는 대사(大蛇)를 발견하고/인사를 통성하여, 경과한 사실을 토파하고/어찌하면 원천강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이가 말하니/길 인도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나의 부탁도 하나 들어주소. 대사 말하거늘/그러면 그 부탁은 어떤 것입니까/그것은 다름이

19) Jung CG(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3) : 용 기본 저작집 5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p137.

20) Jung CG(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1) : 용 기본 저작집 1 《정신요법의 기본 문제》, 솔 출판사, 서울, pp44-46.

아니라 다른 뱀들은 야광주(夜光珠)를 하나만 물어도 용(龍)이 되어 승천(昇天)을 하는데, 나는 야광주를 셋이나 물어도 용이 못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는지 물어다주시오/이리하여 오늘이든 그 대사의 요구에 따라서 그 등을 타 았았다./대사는 오늘이를 등에 태워서/헤엄을 치고 그 청수아당(靑水海)을 넘겨 준 후에/가다보면 매일이라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오늘이가 도착한 곳은 청수해변(靑水海邊)이다. 이름처럼 푸른 물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바다는 연금술에서 ‘화학적 결혼(chymische Hochzeit)’이 이루어지고, 대극이 해소되고 융합이 일어나는 곳이다.²¹⁾ 이곳에서 대사는 야광주를 세 개나 물고도 승천을 못하고 있다. 한국구전설화에 ‘구렁이가 준 구슬’,²²⁾ ‘여우의 영주(靈珠),’²³⁾ ‘여의주(如意珠)’²⁴⁾ 등 동물과 여의주가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설화에 대한 고찰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고 ‘뱀’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폰 프란츠의 ‘어린 왕자’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에서 뱀 모티브에 대한 설명이 있다. 폰 프란츠는 다른 동물처럼 뱀은 본능적인 정신의 한 부분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의식에서 멀리 떨어진 본능이라고 말하면서 용이 뱀의 상징성에 대해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뱀 꿈들은 일반적으로 의식의 마음이 그것의 본능적인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생기므로, 그것은 의식이 특별히 본능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신호로 본다. 그럴 경우, 의식의 태도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격은 인위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외부세계에 너무 잘 적응하고, 또 너무나 많이 매혹 당하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적으로 실패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 이것이 신화에서 뱀이 근본적으로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이다. 그것은 빛의 적이고 동시에 동물 형태로 된 구원자, 로고스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뱀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의식화되고 전체성을 이룰 가능성을 나타내고, 이는 지적인 이해가 아닌 직접적인 내적 경험에서 나온 지식, 통찰

21) 이부영(2013) : 《노자와 용》,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p159.

22) 임석재(任皙宰) 엮음(1993) :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I 》, 평민사, 서울, pp217-219.

23) 임석재(任皙宰) 엮음(1993) : 앞의 책, p228.

24) 임석재(任皙宰) 엮음(1993) : 앞의 책, pp229-231.

과 비밀스런 지혜, 그노시스를 약속한다."²⁵⁾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 무가에서 뱀이 용이 되어 승천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 즉 의식화로 전체성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세 개의 야광주에서 ‘셋’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자.

폰 프란츠는 ‘창조신화’에서 ‘창조적인 힘에는 3이라는 그룹형성이 있고, 방향설정이나 질서가 중요한 이야기에는 4명의 창조자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는 항상 전체적인 의식의 지남력을 의미하고, 3이란 숫자는 어떤 역동적인 행동의 흐름양상을 의미함²⁶⁾을 이야기 하고 있다. 신화나 민담에 3이란 숫자는 자주 등장하고 그 상징적 의미도 다양하다.

4) 책을 읽는 매일이와의 만남

여기서 작별하고 가다보니/매일(每日)이는 저번의 청의동자 모양으로 별층당 위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더라/인사를 마치고, 부모국 원천강의 길 인도를 청하니, 쾌히 승낙하고/원천강에 가서, 자기의 항상 글만 읽고 있는 팔자를 물어다 달라 하고 오늘이에게 부탁하다/그곳에서 일야(一夜)를 유숙하고 작별할 때/가다보면 시녀궁녀(侍女宮女)가 낙루(落淚)를 하고 있으려니 그들에게 물으면, 소원을 성취할 것이오/매일이가 이리 말하다/

오늘이는 매일이라는 처녀를 만난다. 매일의 모습은 앞의 청의동자처럼 별층당 위에 앉아 글을 읽고 있다. 주역에서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은 2번 곤괘(坤卦)이다. 곤(坤)의 성격은 지극히 유순하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는 모습은 땅이 영원히 만물을 기르듯이 끈끈하고, 지극히 조용하고, 그 작용이 어긋나거나 흐트러짐이 없고, 정직하다고 한다. 만물을 포용하여 감화시킴으로써 만물이 그 때문에 성장하고 결실하므로 곤의 덕이 빛남이 있다. 건(乾)의 덕이 이어받아 때맞게 작용하는 곤(坤)의 덕은 순조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²⁷⁾ 매

25) Von Franz ML(1987) : *Der ewige Jüngling: der Puer aeternus und der kreatve Genius im Erwachsenen*, Kösel-Verlag, München, p100.

26) Von Franz ML(1990) : *Schöpfungsmythen*, Kösel-Verlag, München, p202.

27) 이기동 역해(2013) :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서울, p107.

일이라는 이름은 항상 꾸준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여성으로서의 덕을 쌓아가는 것으로 연상해 본다.

5)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녀궁녀와의 만남

그리하여 앞으로 앞으로 가다보니/아닌 게 아니라 시녀궁녀가 흐느껴 울고 있는데/그 이유를 물으니,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일에는 그들이 하늘 옥황시녀였었는데 우연히 득죄하여, 그 물을 푸고 있는 바 그 물을 다 퍼내기 전에는/옥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아무리 푸러하여도 푸는 바가지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기 까닭에/조금도 물을 밖으로 퍼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그리하여, 같이 조력하여 주기를 오늘이에게 청하니, 오늘이는/옥황의 신인(神人)이 못푸는 물을,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어찌 풀 수 있느냐고 사퇴(辭退)를 하다가/정당풀을 베어 모으게 하고, 베게(蓆, 마개)를 만들게 하여 바가지 구멍을 막고, 거기에는 송진(松脂)을 녹여서 그 막은 곳을 칠하여 튼튼히 잘리고 정성을 다하여 옥황상제에게 축도(祝禱)를 한 후 물을 푸니, 순간에 그 물이 말라붙거늘/시녀궁녀 사지(死地)에서 소생한 듯이 광희(狂喜)하며/백배사례하고, 오늘이가 청하는 원천강의 길 인도는 동행하면서 하여주겠다고 하여/얼마쯤 오늘이를 데리고 가더니/어떤 별당(別堂)이 보이였다. 시녀궁녀는/오늘이가 가는 곳을 행복 되게 하여 달라는 의미의 축도를 하며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여기서의 문제는 ‘크게 뚫린 구멍이 있는 바가지’이다. 바가지는 물을 담아 퍼내는 용기(容器)이다. 용기는 보편적인 여성성을 상징하고 있는 모티브이다. 구멍 뚫린 바가지로는 물을 제대로 담아 퍼낼 수 없으니 우선 구멍을 메워서 물이 새지 않는 온전한 바가지로 고쳐야 하는 것이 시녀궁녀와 오늘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시녀궁녀들은 그 방법을 몰라 그냥 울고만 있다가 오늘이가 오자 조력을 부탁한다. 오늘이는 신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풀과 송진으로 바가지의 구멍을 막아 온전한 바가지로 고친다. 여성성에서 중요한 것은 남성적인 완벽성보다는 온전성임을 용이 이야기 한 바 있다. 문제가 있던 바가지가 잘 고쳐진 온전한 바가지로 되는 과정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성성에 대한 지혜와 덕목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바가지를 고치는데 사용된 풀과 송진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속 신화에서, 풀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식물이고, 생명의 지속과 소생을

가져오는 영약이다.²⁸⁾ 송진은 현자(賢者)의 수지(樹脂)로 변환의 물질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생명력(vis animans)인 그러한 물질은 정신과 육체의 중간물로 둘을 결합시키는 ‘세계의 야교’에 비유되고, 메르쿠리우스의 물과 비유된다.²⁹⁾

여기서 오늘이가 신인(神人)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은 인상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용의 ‘욥에의 응답(Antwort auf Job)’에서 살펴보았다.

욥에서 사탄은 야훼를 설득하여,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며,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욥을 시험한다. 욥은 자신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온 몸에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욕창을 기와 조각으로 긁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한다. 사탄의 입문과정에서 상징적인 죽음과 재생의 과정과 같은 시련을 담담히 견뎌낸다.

용은 이러한 야훼의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 야훼가 욥에게 남몰래 저항을 가졌으리라고 가정을 하면서, 그로 인해 야훼가 욥에 대한 시험에 대해 사탄에서 양보를 하면서, 인간이 신이 갖고 있지 않는 무엇을 지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 인간은 전능자에 대해서 작고 약하며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성찰에 근거를 둔 다소 예리한 의식(意識)을 소유하고 있다. 즉 그는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 절대권력인 신에 대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신은 인간처럼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도 그를 주저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성찰을 불리일으킬 만한,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 무한이 작으나 신(神) 자신보다 더 집중된 빛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야훼가 품었던 것이 아닐까하고 용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³⁰⁾ 그리고 ‘욥에의 응답’의 후기에 용은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물음의 소리일 뿐임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이 무가에서 신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이가 해낸 모습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2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2006) : 《한국문화상징사전1, 2》, 두산동아, 서울, pp610-614.

29)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3) : 용 기본 저작집 5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p203.

30)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 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 출판사, 서울, p317.

이제 득죄한 시녀궁녀가 물을 다 퍼내야함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는 시녀궁녀들이 새로워지기 위해 치러야 할 의식으로 생각된다. ‘완전히 비워냄’은 상징적으로 ‘공(空)’의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새로이 충만(充滿)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진아(眞我)를 찾는 십우도(十牛圖)에서 빈 원만 등글게 그려져 있는 인우구망(人牛俱忘)³¹⁾의 그림과도 같다. ‘완전히 비움’은 중요한 어려운 과제이다. 이를 오늘이가 해결하였다고 본다. ‘인우구망’ 다음은 ‘반본환원(反本還源)³²⁾으로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다시 펼쳐져 있다. 오늘이의 도움으로 옥황상제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시녀궁녀들은 오늘이를 별당이 보이는 곳까지 동행한 후 오늘이의 행복을 빌어주고 가버린다. 이제 오늘이는 원천강 입구에 홀로 서 있다.

3. 원천강에서의 부모와의 만남

1) 원천강 문지기와의 대면

별당을 향하여 그 주위에는 만리장성을 쌓았고/원문(轉門)에는 문지기가 파수를 보고 있었다/문을 열어달라하니, 그것은 누구이나/나는 인간세상 오늘이라는 처녀이요/무슨 연고로 이곳에 왔고/이것이 나의 부모국이라하니 찾아왔소/문을 열어줄 수 없노라/문지기의 거절은 너무나 냉정하였고/가련한 오늘이에게는 최후의 절망인 것 같이하어/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오늘이는 용기의 최의 일 발까지를 상실하고/안전(眼前)이 암연(黯然)하여 부모국 문전에 혼도(昏倒)하였다/지면에 복와(伏臥)한 오늘이는 기백만리 인간 원방(遠方)에서 처녀 단지 혼자 외로이 온갖 산과 온갖 물을 건너 온갖 고생 겪으면서/부모국이라고 이런 곳을 찾아왔는데/이렇게도 박정하게 하는구나/이 문안에는 내 부모 있으려만은/이 문 앞에 내 여기 왔건만은/매일이는 소원성취 한다더러만은/원천강 신인들은 너무 무정하다/비인 들(曠野)에 홀로 울던 이 처녀/천산만하(千山萬河) 넘을 적에 외로운 처녀/부모국의 문 앞에 외로운 처녀/부모는 다 보았나, 내 할 일 다하였나/강님갈까 무엇하리, 여기서 죽자/팔자부탁 어찌하리/모든 은혜 어찌하리/박정한 문지기야, 무정한 신인들아/그리웠던 어머니야, 그리웠던 아버님아/오늘이는 의

31) 곽암 저(이기영 역해)(1995) : 《십우도》,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p72.

32) 곽암 저(이기영 역해)(1995) : 앞의 책, p86.

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 말하며/연하여 흐느껴 우니, 돌같은 문지기의 염통에도 눈물의 동정이 우러났다/문지기가 부모궁에 올라가서, 이런 사실을 주하니/벌써 부모궁에서도 알고 있었다/그 비명(悲鳴)하는 소리는/부모에게까지 흘러갔던 것이다/그리하여 문지기가 저의 책임으로써 문을 못 열어주었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엿 주어 드리려 왔습니다하니/오늘 벌써 다 알았다. 들어오게 하여라/

여기에 통곡하는 오늘이가 있다. 거의 망아상태로 문지기와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원천강의 통과 없이는 자신의 삶이 죽음과 같음을 절규한다. 오늘이가 넘어야 하는 사면으로의 입문의레이면서, 용의 자기 초월적 기능을 연상시킨다.

“... 의식과 무의식의 하나로 통합에는 자기의 초월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의식성의 탄생, 또는 새로운 상징의 탄생이 생긴다. 이는 대극간의 적당한 타협이나, 서로에게의 양보를 통한 것이 아닌, 두 대극간의 팽팽한 긴장과 맞섬으로 이 두 대극을 뛰어 넘는 새로운 하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삶의 본연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그 두 대극을 철저히 체험해나감으로써 정신의 전체성, 즉 자기에 도달할 수 있다.”³³⁾

오늘이의 울부짖음을 한국의 샤머니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샤먼, 무당들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혼’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발견한다. 그는 그 혼과 하나가 되어 혼 - 이미 남의 혼이 아닌 - 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은 자(死者)와 산 자(生者) 사이에 한바탕의 울음바다가 생기면 그곳에는 ‘너’와 ‘나’의 경계가 없다. 저승과 이승도 없다. 오직 경계 없는 하나의 세계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무당은 자기가 치유의 인도자이며 주재자라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이승으로 돌아와 내담자의 닛두리에 마무리를 짓는다. 그런 다음 한을 풀 영혼을 저승으로 보낸다.”³⁴⁾

2) 부모와의 만남과 회포(懷抱)

낙망의 극에 있던 오늘이/천만 의외의 희보에 꿈인가하며/부모의 앞예를 가니, 아버지 하는 말이/어떤 처녀가 왜 이곳에 왔느냐하니 학이/새깃속에서 살던 때부

33)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p60.

34) 이부영(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p30.

터/지금까지의 지난 일을 모조리 말하여드리었다/부모가 기특하다고 칭찬하며/
자기 자식이 분명하다고 하였다/그리하여 또 하는 말이/너를 낳은 날에 옥황상제
가 우리를 불러서/원천강을 지키라고 하니/어느영(御命)이라 거역할 수 없어, 여
기 있게 되었으나/항상 너의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었으며/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한 바탕의 울음바다가 있던 후, 오늘이는 드디어 자신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오늘이가 애타게 그리워하고 찾던 자신의 뿌리인 부모와의 만남이다. 이 부모
와의 늦은 만남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아의식이 대상과의 원초적인 동일시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
요로 한다. 그것이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야 가능하고 그때까지 자아의식은 고도
의 충동과 환경조건 사이의 노리개와도 같다. 심지어 소아기에서 사춘기까지는
자체적인 정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남, 주체와 객체와의 구별이 불분명
한 무의식상태에서 자아가 탄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차츰 세계에 대한 지식이 확
대되고, 외부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고태적, 신화적, 집단적 요소의 투사
상을 제거하고 이를 의식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남과 다른 나를
구축한다.”³⁵⁾

오늘이의 자아가 탄생하고, 자아의식이 성장하여 탄생과 더불어 분리되었던
원천강의 부모를 찾게 된 오늘이는 부모에게 오기까지 책을 통한 공부와 수련,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원천강을 둘러봄

이리하여 구경이나 하라고 하니/만리장성을 둘러쌓은 곳에/곳곳마다 문을 열
어보았다/보니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두 있는 것이었다/

원천강은 이 무가의 중심점(中心點)이다. 원천강이 사시절이 모두 있는 곳이
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곳임을 상징한다. 원천강(袁天綱)이란 본래 당나라의
점술가의 이름을 뜻한다고 한다. 제주무가인 ‘이공본풀이’ 도입부에 부자인 원
진국과 가난한 김진국이 있었는데, 둘은 친구인데 둘 다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절에서 권제를 받으러 온 대사(大師)에게 권제를 내어주면서 원천강화주

35)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pp38-39.

역(袁天綱畫周易)으로 자신들의 팔자사주를 봐달라³⁶⁾고 요청한다. 원천강화주역이란 이름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는 주역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주역(周易)’에서는 음(陰)과 양(陽) 이원(二元)의 작용을 가지고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도(道)를 연역하였고, … 역의 근본관념인 변역(變易)으로도 알 수 있듯이 궁(窮)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通)한다는 궁통(窮通)이라는 본질에 따라 양(陽)의 극(極)은 음(陰)이 되고 음(陰)의 극은 다시 양(陽)이 되며, 또 상(上)에 있는 양은 하강하고 하(下)에 있는 음은 상승하여 여기서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교감(交感)이 행해지며 그 결과로 만물이 생생(生生)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⁷⁾

동중서(董仲舒)는 우주를 주재하는 최고의 존재로서 ‘천(天)’을 상징하고, 천이 만물을 주재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기(氣)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그는 ‘천지(天地)의 기(氣)는 하나가 되고, 나누면 음양(陰陽)이 되며, 갈라지면 사시(四時)가 되고, 벌여놓으면 오행(五行)이 된다’고 하였고, 오행을 방위(方位)와 사시(四時)에다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행(五行)의 기능은 제각기 그 능력을 발휘한다. 목(木)은 동방에 거하면서 춘기(春氣)를 주관하고, 화(火)는 남방에 거하면서 하기(夏氣)를 주관하고, 금(金)은 서방에 거하면서 추기(秋氣)를 주관하고, 수(水)는 북방에 거하면서 동기(冬氣)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목(木)은 삶(生)을 주관하며, 화(火)는 더위를 주관하며, 수(水)는 추위를 주관한다 … 토(土)는 중앙에 거하는데, 이것을 일러 천운(天潤)이라 한다. 이것은 천(天)을 도와주는 충실한 신하와 같으므로 그 덕(德)이 무성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일시(一時)의 일로서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행이면서도 사시(四時)인 것은 토(土)가 그것을 겸(兼)하였기 때문(上揭書, 五行之義編)”³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음양설(陰陽設)의 인생론적 목적은 대립적인 음과 양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을 통하여 조화(調和)와 장양(長養)의 결과를 얻으려는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체와 현상의 양경계(兩境界)에 걸친 우주적인 대조화(大調和) 또는 대화합(大

36) 赤松 智城, 秋葉 隆(최석영 해제)(2008) : 《조선무속의 연구 (상)》, 민속 인류학 자료대계 16, 민속원, 서울, pp415-416.

37) 김의숙(1993) : 《한국민속제 의와 음양오행 - 민속제 의의 형성이론 -》, 집문당, 서울, pp47-48.

38) 김의숙(1993) : 앞의 책, pp50-52.

和合)을 가리키는 ‘태화(太和)’와 중용(中庸)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中和)’와 상통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이야기는 분석심리학에서 이야기 하는 전체성의 실현으로의 자기실현에 동반되는 대극의 합일과 자기의 자율적인 작용에 의한 균형과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양의 이러한 주요사상들과 같은 맥을 나누고 있다.

융은 20년 이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주역에 열중했었고, 역경의 결과는 융의 생각으로는 결코 우연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규칙성과 관계되고⁴⁰⁾ 주역 점(占)을 보는 사람들은 내적 일어남과 외적 일어남의 일치 즉 ‘심리적 및 물리적 사건의 일치’가 관계됨을 알았다고 한다.⁴¹⁾ 그리고 역경은 그의 본성에 따라 의식의 합리주의보다는 무의식과 더욱 긴밀히 결합하고 있음도 이야기 하고 있다.⁴²⁾

원천강의 구조를 상상해보면서 이는 만다라(Mandala)의 구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시절이 모두 모여 있는 원천강은 기능적으로 사시절을 조절하는 중심이다.

원천강에서 만난 부모를 통해 오늘이든 그 동안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의 초월적인 존재로의 변환을 준비하게 된다.

4) 오늘이든 안고 온 문제들의 답과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됨

구경을 그치고, 오늘이든/또 다시 온 길을 돌아가야 할 때/저번의 모든 부탁을 말하니, 부모 하는 말이/장상이와 매일이는 부부가 되면 만년영화를 누릴 것이요/연화동(蓮花董)은 웃가지의 꽃을 따서/초면하는 사람에게 주어버리면/다른 가지에도 만발할 것이며/대사(大蛇)는 야광주를 한 개를 물었으면 할 테인데/너 무 욕심을 많이 가져 세 개를 물어버리니/용이 못된 것이다. 그러니 초면자에게/ 두 개를 뺏어서 주어버리면, 곧 용이 되리라 하고/너도 그 야광주들과 연화를 가지면 신녀(神女)가 되리라/

오늘이든 부모를 만나 그들이 항상 자신을 지켜주고 있고 자신이 혼자가 아

39) 김의숙(1993) : 앞의 책, p54.

40)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융 기본 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pp224-226.

41)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앞의 책, pp231-232.

42)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앞의 책, p242.

나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가야할 길도 깨닫게 된다.

4.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

돌아오는 길에 매일이를 만나/부모국에서 들은 대로 말하니/장상이 있는 곳을 모른다거늘 내가 데려다주마 하고, 같이 가다가 대사를 만나서 그 사실을 말하니/야광주를 뺏어서, 오늘이에게 주어두고/즉시 용이 되어, 뇌성벽력과 아울러 승천하였다/다음에 연꽃나무(蓮花木)를 만나 그런 말을 하니/웃가지를 꺾어서 즉시 오늘이에게 주다/그러니 가지가지마다 고은 꽃이 피어서/아름다운 향내를 뿜내게 되었다/다음에 장상이를 만나니, 매일과 장상이/부부가 되어 차세상에 만년영화를 누리고/오늘이는 백씨부인을 만나서/야광주 하나를 선사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 후/옥황의 신녀로 화하였다/이러한 오늘이는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騰寫)하게 하였다.

1) 매일리와 오늘이의 동행의 시작

매일리는 오늘이와의 동행에서 ‘함께 경험함(Miterleben)’을 통해 실제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혜를 터득하리라 생각된다. 매일리와 오늘이는 바닷가에서 대사를 만난다.

2) 대사의 용으로의 변환과 승천, 야광주를 받은 오늘이

여기서 대사가 알았어야 하는 것이 욕심이다. 야광주 두 개는 뺏어서 오늘이에게 줌으로써 대사는 용으로 승천한다. 한편으로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분명히 야광주 한 개를 물고 용으로 변하여 승천하는 뱀들을 보았음에도 대사는 세 개의 야광주를 물고 있었던 것이다. 대사의 많으면 더 좋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의 교정이 이루어지자 용으로의 변환과 승천(昇天)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정신의 본능적인 면을 상징하고 있는 뱀이 영적인 것으로의 변환으로 볼 수 있다. 음양의 원리로는 곤(坤)이 건(乾)으로의 커다란 변환의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변환을 이루어낸 용에게는 음과 양, 하늘과 땅이 모두 존재하며, 상승과 하강이 모두 가능한 존재, 즉 ‘하나가 된 존재’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무가에서의 용은 뱀의 변환된 모습으로 이를 용의 ‘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에서 분석심리학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의식과 무의식 내용의 합성과 원형의 의식내용에 미치는 작용의 의식화가 의식적으로 수행이 되었을 때 그것은 심적 노력과 정신력 집중의 최고의 성취를 나타낸다. …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충동의 상(像)은 색의 단계 중에서 끝부분인 붉은 색이 아니라 보라색에서 발견된다. 충동의 역동은 말하자면 스펙트럼의 적외선 부분에, 충동상은 자외선 부분에 존재한다.⁴³⁾ … 보라색은 소위 ‘신비적인’ 색으로, 의심할 바 없이 원형의 ‘신비적’ 혹은 역설적인 측면을 만족스럽게 잘 반영한다. 보라색은 하나의 색이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 충동의 실현과 동화는 절대로 붉은 색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충동의 영역으로의 침강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상의 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상은 충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충동을 환기시킨다. … 종교적 현상학을 아는 사람들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열정이 비록 적대적이긴 하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는 순간이 있음을 잘 안다. … 원형은 충동의 형식원리이기 때문에 파란색 안에 붉은 색을 품고 있다. … 융은 원형과 그의 대극간의 내적 친화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이 보라색의 이미지를 추천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연금술사들의 상상력은 자기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Uroboros)의 상징으로 표현하려고 했다.”⁴⁴⁾

3) 상가지에서 겪은 연꽃을 받은 오늘이

사시절과의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곳이 바로 ‘성장과 개화(開花)’를 보이는 연꽃나무이다. 연꽃나무가 상가지에만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에의 집착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일깨워주고 있다. 불교에서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하심(下心)과 관련성을 보이는 듯하다. 연화를 피워낸다는 것의 종교적인 상징적 의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일 것이다. 그것을 꺾어 다른 이에게 준다는 것은 하심(下心), 버림, 비움, 희생(犧牲)의 의미이기도 하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의 모습에서, 불교에서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 슬픔의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사양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위안하고 해방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남는 보살(보티사트바(Bodhisattva))의 모

43) 이것은 대기나 하늘의 색으로서의 청색은 정신적 내용의 묘사에 즐겨 사용되고 이와는 달리 적색은 ‘따뜻한’ 색으로서 감정적이고 정동적인 내용을 묘사하는 데 이용된다는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함.

44)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p76-78.

습⁴⁵)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집착했던 중요한 꽃을 꺾어 줌으로써 아래의 많은 가지에 향기로운 꽃들을 피우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와 교훈이다. 정적(靜的)인 나무의 모습에서 적극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분석심리학적으로 강한 감정이 실린 콤플렉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콤플렉스의 의식화 작업으로 한동안 콤플렉스로 인해 정체된 정신적 에너지의 흐름이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지연되었던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과 비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일이는 장상과 만나 부부가 되어야 한다. 지적 작업만 하는 두 남녀는 지성에서 감성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배려심 그리고 자기희생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이행하게 된다.

4) 장상이와 매일이의 결혼

책만 읽으며 지적 작업에 열중해야 했던 두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이 이 무가에서 보이는 독특한 부분이다. 연금술에서 실험을 하는 두 오누이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용의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오성(悟性)이 궁극적으로 연금술의 목적에 적합한 도구인지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많다. ... 그것은 오직 체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상화과정들이며 지적으로는 단지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연금술사들이 한편으로는 책의 연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찢어라, 그래야 너희 심장이 찢기지 않는다(Rumpite libros, ne corda vestra rumpantus)”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해(Verstehen) 가까이로 이끄는 체험일 것이다.”⁴⁶⁾

분석심리학에서 개성화과정에서의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의 결합은 궁극적으로는 대극의 융합이고, 이는 곧 전체성(Ganzheit)으로의 자기실현을 상징하고 있다. 연금술에서 추구하는 바도 바로 ‘온전한 인간(homo totus)’으로 이러한 전체성(Ganzheit)을 위한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⁴⁷⁾을 이야기 하고 있

45) Campbell J(홍윤희 역)(2006) : 《신화의 이미지》, 살림출판사, 서울, pp490-493.

46) Jung CG(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 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331.

47) Jung CG(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용 기본 저작집 5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pp13-14.

고, 대극의 체험은 지적 통찰이나 어떤 감득(感得)의 능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숙명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한 체험은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붓다의 진리를, 그것도 극히 자명하게 입증해 줄 수 있으며, 대극성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전체성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한 신성한 형상에 다가갈 수도 없음⁴⁸⁾을 이야기 하고 있다.

주돈이⁴⁹⁾는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하늘의 길(건도乾道)은 남자의 길을 이루고, 땅의 길(곤도坤道)은 여자의 원리를 이룬다. 이 두 기(氣)가 서로 교감하여 만물을 생성 변화시킨다. 만물들은 이렇게 해서 창조되며, 변하고 변하는 것이 끝이 없다.(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⁵⁰⁾ 매일이와 장상의 결합은 이러한 음과 양의 결합과 조화를 상징한다. 서양에서의 연금술도 하나의 화학적 변화의 과정을 왕과 왕비의 화학적 결혼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⁵¹⁾

그리고 매일이와 장상 부부는 옥황상제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상들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신성한 쌍(göttliche Syzygie)’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엘리야데의 ‘샤머니즘’에서도 샤먼들의 수호영신들과의 ‘입문의례적인 신혼(神婚)’의 예⁵²⁾가 있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서도 무당과 몸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무당들의 자신들의 수호영신과의 입문의례적인 신성혼이 있다.⁵³⁾

이제 오늘이마가 마지막으로 발길을 향한 곳으로 가 보자.

5) 백씨 부인에게의 보은(報恩)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모국을 가르쳐 준 백씨부인에게 오늘이마는 야광주 한 개를 선사한 후, 자신은 연꽃과 야광주를 가지고 신녀로 화하였다.

48) Jung CG(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31.

49) 주돈이(周敦頤) : 1017~1073, 중국 북송시대의 철학자. 자는 무숙(주자)의 현창에 의해서 도학(주자학)의 제 1주자로서 존경받았다고 함.

50) 김의숙(1993) :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 민속제의의 형성이론 -》, 집문당, 서울, p48.

51) Jung CG(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 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p17-21.

52) Eliade M(이윤기 옮김)(1992) : 《샤머니즘》, 도서출판 까치, 서울, pp369-374.

53) 이부영(2002) : 《아니마와 아니무스》,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pp251-254.

6) 옥황의 신녀가 되어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는 오늘이

연꽃과 야광주를 양 손에 들고 있는 오늘이는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로 전체성의 자기실현의 상징이기도 하다. 옥황의 신녀(神女)가 된 오늘이는 인간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한다. 심우도의 마지막 그림인 입전수수(入塵垂手)⁵⁴⁾가 그려지는 부분이다. 이제 원천강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마칠 때가 된 것 같다. 지면 관계로 한국용연구원 수료논문의 많은 부분의 생략되었고, 이로 인해 이 줄고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줄고의 분석심리학적 고찰이 이 무가가 뜻하고자 하는 바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곽암 저(이기영 역해)(1995): 《심우도》,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 김의숙(1993):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민속제의의 형성이론-》, 집문당, 서울.
- 박 신: 한국민담 ‘복타러 간 사람’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한국용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
- 박상학(2009): “한국민담 ‘구복여행’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Vol. 40, 중앙문화사, 서울.
- 이기동 역해(2013):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서울.
- 이부영(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 _____ (2013): 《노자와 응》,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 _____ (2002): 《자기와 자기실현》,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 _____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 임석재(1993):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I》, 평민사,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2006): 《한국문화상징사전1, 2》, 두산동아, 서울.
- 허담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도서출판 보고서, 서울.
- 赤松 智城, 秋葉 隆(1937): 《朝鮮巫俗の研究 上》, 大阪屋號書店.
- 赤松 智城, 秋葉 隆(최석영 해제)(2008): 《조선무속의 연구(상)》, 민속 인류학 자료대계 16, 민속원, 서울.
- Campbell J(홍윤희 역)(2006): 《신화의 이미지》, 살림출판사, 서울.

54) 곽암 저(이기영 역해)(1995): 《심우도》,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p100.

- Eliade M(이윤기 옮김)(1992) : 《샤머니즘》, 도서출판 까치, 서울.
- Eliade M(이은봉 옮김)(2009) : 《종교의 형태론》, 도서출판 한길사, 파주.
- Jung CG(2001) : 융 기본 저작집 1 《정신요법의 기본 문제》,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3) :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4) : 융 기본 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3) : 융 기본 저작집 5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4) : 융 기본 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6) : 융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4) : 융 기본 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 Jung CG 엮음(이부영 외 옮김)(2013)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 Neumann E(1995) :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 Von Franz ML(1987) : *Der ewige Jüngling: der Puer aeternus und der kreative Genius im Erwachsenen*, Kösel-Verlag, München.
- _____ (1990) : *Schöpfungsmythen*, Kösel-Verlag, München.
- Zimmer H(Campbell J 엮음)(이숙중 옮김)(2002) : 《인도의 신화와 예술》, 도서출판 대원사, 서울.

Shim-Sŏng Yŏn-Gu 2014, 29 : 1

〈ABSTRACT〉

A Study on Korean Shamanistic Myth
'*Woencheongang-Bonpuri*' from a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Kwang Ja Lee, M.D.*

The '*Woencheongang-Bonpuri*' is one of the shamanistic myths in Cheju Island. That is a history of ancestor God of the '*Woencheongang*'. This myth contains a shaman's initiation. And we can find important archetypal images in it. There are a child, old wise woman, book, water, tree, snake, *Yakwangju* which is a gem that emits light in the dark, dragon, hierogamy, goddess, time, etc. I've tried to interpret these images through the method of ampl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A heroine of this shamanistic myth is '*Ohnuri*' that means 'today'. When she came out from the earth, she was a 'abandoned child' which is a 'hero-motif' in the fairytale and also a theme of individuation process in the analytical psychology. In the mean time, she grew up with helps of the nature, crane, and '*Yakwangju*'. One day, she was found in the field by the people. They gave her a name of '*Ohnuri*' and one day, an old wise woman told her how to go to her parents. On her way to the '*Woencheongang*' where her parents regulate four seasons, she had met many characters which were in stuck. They told willingly *Ohnuri* a way to go to the '*Woencheongang*'. Instead, they wanted to get solutions of their difficult problems. Finally, she met her parents in the '*Woencheongang*' with joy and they taught her how to solve problems. Therefore, all characters in this myth could go on their own individuation process fortunately with help of the *Woencheongang's* wisdom. In the meanwhile, *Ohnuri* got Lotus and *Yakwangju* and then she transformed to the goddess of the highest of the heavenly gods. Then she had helped people who get in trouble. In this way, the '*Woencheon-*

*Bonpuri*³ was psychologically interpreted from aspect of analytical psychology.

KEY WORDS : Shamanistic myth · Initiation · Individuation process · Archetypal images · Transformation · *Woencheongang* · *Ohnuri* · Goddess.

*Jungian Psychoanalyst, Member of IAAP, Psychiatrist

■ 부 록 ■

원천강(袁天綱)본풀이(本解)⁵⁵⁾

옥같은 계집애가 적막한 들에 외로이 나타나니
 그를 발견한 차세상사람들이
 어느 어떠한 아이냐고 묻더라
 나는 강님들에서 솟아났습니다
 성이 무엇이며 이름이 무엇이나
 나는 성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하니 어찌하여 우금(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내가 강님들에 솟아날 때부터 어떤 학조(鶴)가 날아와서 한 날개를 깎아주고 한
 날개를 덮어주며 야광주를 물려주며, 그리저리 살려주니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왔
 습니다
 연령은 얼마이나. 나이도 모릅니다
 이러하니 사람사람들이
 너는 낳은 날을 모르니 오늘을 낳은 날로 하여 이름을 오늘이라고 하라
 여러 백성들에게 이름을 지어 얻어 이리저리 다니다가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한테 가니
 너는 오늘이가 아니냐, 예 오늘이올시다
 너의 부모국父母國을 아느냐
 모릅니다, 너의 부모국은 원천강이라
 원천강은 어찌하여 갑니까
 네가 원천강을 가려거든
 백사가白沙街의 별층당別層堂위에 고좌高坐하여
 글읽는 동영童嬰이 있으니, 그 동영에게 찾아가서 문의하면, 소망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서천강西天江의 백사가 별층당을 찾아가서 문의해서 종일토록 서 있다가

55) 赤松智城·秋葉隆(1937) : 《朝鮮巫俗の研究 上》 pp467-479에 수록된 부분으로 가능
한 한 원문에 가깝게 옮기려고 하였음.

날이 일모日暮하니 울성柵城안에 들어가서
 과객이 왔습시다하니
 청의동자靑衣童子 한 명이 나오면서, 누구입니까 묻거늘
 나는 오늘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도령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장상張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옥황玉皇의 분부가 여기 앉아 언제든지 글
 만 읽어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부모국이 원천강이라하니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이가 대답하니
 그 청의동자가 친절한 말로
 오늘은 날이 다 저물었으니 올라와서 이곳에 유숙하였다가 밤새거든 떠나시오,
 올라가서 치사하고 백씨부인 만난 사실을 말하며 길인도하여 주기를 간청하니
 가다보면 연화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연꽃나무가 있습니다
 그 연꽃나무에게 물으면 알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한데 원천강에 가거든 왜 내가 밤낮 글만 읽어야하고
 이 성밖으로 외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다가 전하여 주시오
 날이 새어 떠나 가다보니
 과연 연화못가에 연꽃나무가 있더라
 연꽃나무를 보고, 연꽃나무야 말 좀 물어보자
 어디로 가면 원천강을 가느냐
 웨일로 원천강을 가는고
 나는 오늘이라는 사람인데
 부모국 원천강을 찾아가노라
 반가운 일로구나
 그러면 나의 팔자나 알아다 주시오
 무슨 팔자이뇨
 나는 겨울에는 움이 뿌리에 들고
 정월이 나면 몸중에 들었다
 이월이 되면 가지에 가고, 삼월이 나면 꽃이 되는데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아니 피니
 이 팔자를 물어주소
 그리고 원천강은 가다보면 청수아당가清水海邊에 천하대사天下大蛇가 누어서 구
 르고 있을 터이니까 그 대사에게 물으면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요
 결별하여 청수아당가에 이르러 이리저리 구르고 있는 대사를 발견하고
 인사를 통성하여, 경과한 사실을 토패하고
 어찌하면 원천강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이까 말하니
 길 인도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나의 부탁도 하나 들어주소. 대사 말하거늘
 그러면 그 부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뱀들은 야광주夜光珠를 하나만 물어도 용龍이 되어
 승천昇天을 하는데, 나는 야광주를 셋이나 물어도 용이 못되고 있으니 어찌면 좋
 겠는지 물어다주소
 이리하여 오늘이는 그 대사의 요구에 따라서 그 등을 타 앉았다.
 대사는 오늘이를 등에 태워서
 헤엄을 치고 그 청수아당을 넘겨 준 후에
 가다보면 매일이라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여기서 작별하고 가다보니
 매일每日이는 저 번의 청의동자 모양으로 별층당 위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더라
 인사를 마치고, 부모국 원천강의 길 인도를 청하니, 쾌히 승낙하고
 원천강에 가서, 자기의 항상 글만 읽고 있는 팔자를 물어다 달라 하고 오늘이에게
 부탁하다
 그곳에서 일야를 유숙하고 작별할 때
 가다보면 시녀궁녀侍女宮女가 낙루落淚를 하고 있으려니 그들에게 물으면, 소원
 을 성취할 것이요
 매일이가 이리 말하다
 그리하여 앞으로 앞으로 가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시녀궁녀가 흐느껴 울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일에는 그들이 하늘 옥황시녀였었
 는데 우연히 득죄하여, 그 물을 푸고 있는 바 그 물을 다 퍼내기 전에는
 옥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푸러하여도 푸는 바가지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기 까닭에
 조금도 물을 밖으로 퍼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같이 조력하여 주기를 오늘이에게 청하니, 오늘이는
 옥황의 신인神인이 못푸는 물을,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어찌 풀 수 있느냐고 사퇴
 辭退를 하다가
 정당풀을 베어 모으게 하고, 베게(楛, 마개)를 만들게 하여 바가지 구멍을 막고,
 거기에서 송진松脂을 녹여서 그 막은 곳을 칠하여 튼튼히 잘르고 정성을 다하여
 옥황상제에게 축도祝禱를 한 후 물을 푸니, 순간에 그 물이 말라붙거늘
 시녀궁녀 사지死地에서 소생한 듯이 광희狂喜하며
 백배사례하고, 오늘이가 청하는 원천강의 길 인도는 동행하면서 하여주겠다고 하여
 얼마쯤 오늘이를 데리고 가더니
 어떤 별당別堂이 보이였다. 시녀궁녀는
 오늘이가 가는 곳을 행복 되게 하여 달라는 의미의 축도를 하며 제 갈 길로 가버
 렸다
 별당을 향하여 그 주위에는 만리장성을 쌓았고
 원문轉門에는 문지기가 파수를 보고 있었다
 문을 열어달라하니, 그것은 누구이나
 나는 인간세상 오늘이라는 처녀이요
 무슨 연고로 이곳에 왔는고
 이것이 나의 부모국이라하니 찾아왔소
 문을 열어줄 수 없노라
 문지기의 거절은 너무나 냉정하였고
 가련한 오늘이에게는 최후의 절망인 것 같이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오늘이는 용기의 최의 일발까지를 상실하고
 안전眼前이 암연黯然而서 부모국 문전에 혼도昏倒하였다
 지면에 복와伏臥한 오늘이는 기백만리 인간 원방遠方에서 처녀 단지 혼자 외로이
 온갖 산과 온갖 물을 건너 온갖 고생 겪으면서
 부모국이라고 이런 곳을 찾아왔는데
 이렇게도 박정하게 하는구나

이 문안에는 내 부모 있으려면만은
 이 문앞에 내 여기 왔건만은
 매일이는 소원성취 한다더러만은
 원천강 신인들은 너무 무정하다
 비인 들(曠野)에 홀로 울던 이 처녀
 천산만하千山萬河 넘을 적에 외로운 처녀
 부모국의 문 앞에 외로운 처녀
 부모는 다 보았나, 내 할 일 다하였나
 강님갈까 무엇하리, 여기서 죽자
 팔자부탁 어찌하리
 모든 은혜 어찌하리
 박정한 문지기야, 무정한 신인들아
 그리웠던 어머니야, 그리웠던 아버지야
 오늘이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 말하며
 연하여 흐느껴 우니, 돌같은 문지기의 엄통에도 눈물의 동정이 우러났다
 문지기가 부모궁에 올라가서, 이런 사실을 주하니
 벌써 부모궁에서도 알고 있었다
 그 비명悲鳴하는 소리는
 부모에게까지 흘러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지기가
 저의 책임으로써 문을 못열어주었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엿 주어 드리려 왔습니다
 하니
 오늘 벌써 다 알았다. 들어오게 하여라
 낙망의 극에 있던 오늘이
 천만 의외의 희보에 꿈인가하며
 부모의 앞예를 가니, 아버지 하는 말이
 어떤 처녀가 왜 이곳에 왔느냐하니 학이
 새깃속에서 살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지난 일을 모조리 말하여드리었다
 부모가 기특하다고 칭찬하며

자기 자식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또 하는 말이
 너를 낳은 날에 옥황상제가 우리를 불러서
 원천강을 지키라고 하니
 어느영御命이라 거역할 수 없어, 여기 있게 되었으나
 항상 너의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었으며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구경이나 하라고 하니
 만리장성을 둘러싸은 곳에
 곳곳마다 문을 열어보았다
 보니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두 있는 것이었다
 구경을 그치고, 오늘이
 또 다시 온 길을 돌아가야 할 때
 저번의 모든 부탁을 말하니, 부모 하는 말이
 장상이와 매일이는 부부가 되면 만년영화를 누릴 것이요
 연화동蓮花董은 옷가지의 꽃을 따서
 초면하는 사람에게 주어버리면
 다른 가지에도 만발할 것이며
 대사大蛇는 야광주를 한 개를 물었으면 할 테인데
 너무 욕심을 많이 가져 세 개를 물어버리니
 용이 못된 것이다. 그러니 초면자에게
 두 개를 뺏아서 주어버리면, 곧 용이 되리라 하고
 너도 그 야광주들과 연화를 가지면 신녀神女가 되리라
 돌아오는 길에 매일이를 만나
 부모국에서 들은 대로 말하니
 장상이 있는 곳을 모른다거늘
 내가 데려다주마 하고, 같이 가다가 대사를 만나서 그 사실을 말하니
 야광주를 뺏아서, 오늘이에게 주어두고
 즉시 용이 되어, 뇌성벽력과 아울러 승천하였다
 다음에 연꽃나무蓮花木를 만나 그런 말을 하니

웃가지를 꺾어서 즉시 오늘이에게 주다
그러니 가지가지마다 고은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향내를 뽐내게 되었다
다음에 장상이를 만나니, 매일과 장상이
부부가 되어 차세상에 만년영화를 누리고
오늘이는 백씨부인을 만나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 후
옥황의 신녀로 화하였다
이러한 오늘이는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騰寫하게 하였다.